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2. 14.(금) 12:5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김병준 예보팀장 신혜경
		전화번호	053-956-0365

16일~17일 경북서부내륙 “눈” 이후 “강추위”

- 16~17일 경북서부내륙 눈, 빙판길 조심
- 16일 오후부터 기온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 뚝



[2월 16일 아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16~17일 비/눈 전망]

- 16일(일)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 16일 새벽(03~06시)부터 오전(09~12시)까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북서부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새벽(06~09시)에 비 또는 눈으로 바뀌겠으며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16일 오후~17일(월)은 대기 하층 1.5km 부근의 영하 12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이 눈구름대가 유입되는 서쪽지역(서울·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산지)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 특히, 16일 밤~17일 오전,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경북서부내륙에도 눈이 내리겠으니,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변동성) 17일 오전에 서풍이 강해질 경우,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이 대구와 경북내륙으로 확대되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6~17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고, 기상변화로 인해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말 야외활동(나들이, 산행 등)이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 전망]

□ 1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빠르게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전국의 낮기온이 전날보다 15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겠고, 19일 까지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 특히, 17일부터는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이후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부근까지 낮아지는 등,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랭질환, 수도관 동파 등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 이번 주(10~14일) 동안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인 상태에서 16일 오후~19일 오전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20일부터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강풍 및 풍랑 전망]

□ (강풍) 16일~18일 경북지역 높은 산지와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5~60km(초속 10~16m)의 강한 바람,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풍랑) 15일~18일 전해상에서는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3~6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